

# 돈줄 마른 스타트업 '비상경영' 몸집 줄이고, 비주력 사업 정리

## 1분기 벤처투자액 60% 급감

신선한 돼지고기를 당일 배송해주는 서비스로 유명한 축산물 전문 유통 스타트업 정육각은 최근 인력 구조조정을 했다. 투자 흑란기에 대응한 인건비 절감 차원이다. 지난해 8월 270여 명이던 직원은 현재 15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유명 크리에이터 슈카월드, 빠니볼 등의 소속사인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스타트업 샌드박스네트워크는 지난달 e스포츠 자회사 SBXG를 매각했다.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란 평가가 나왔다.

두 회사 사례처럼 경기 위축으로 투자 자금 추가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조적과 사업 효율화에 나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투자 유치액과 사내 보유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고 비상경영 시나리오를 가동하는 업체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국내 투자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유동성 감소, 실물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발표한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벤처투자액은 881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60.3% 줄었다.



## 고금리에 투자시장 '공공' 스타트업, 체질개선 나서

## 시장 위축 장기화 전망 우세 "발목잡는 규제부터 풀어줘야"

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회수시장 부진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기간 글로벌 벤처투자 실적은 미국이 55.1%, 이스라엘이 73.6% 감소했다"며 "미국의 경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사에 대한 13조원 규모 메가딜 등 초대형 투자 두 건을 제외하면 75.1% 줄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 보면 올 1분기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분야 투자액은 1986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4.2% 줄었다. 같은 기간 바이오·의료는 1520억원으로 63.3%, 유통·서비스는 1028억원으로 77.5% 감소했다. 영상·공연·음반 업종만 유일하게 8.5% 증가해 110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 금액은 5696억원으로 1년 전 대비 78.6% 감소했다.

당분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 전망이 많다.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실물 경기 둔화가 여전해사.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연 3.50%)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13개월 연속 100을 밑돌았다. 100 이하면 기업들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부문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민간 벤처모태펀드 제도는 오는 10월에도 시행된다.

벤처캐피털(VC)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벤처 시장에 자금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며 "VC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작은 창문에도 OK" LG전자 이동식 에어컨 출시

LG전자가 소형 및 대형 창호(창문과 문)에 설치할 수 있는 2023년형 '휘센 이동식 에어컨'을 18일 출시한다. 소형 설치 키트를 구매하면 높이 56~102cm의 작은 창호에도 설치할 수 있다. 휘센 이동식 에어컨은 그동안 높이 89~252cm 창호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번 신제품은 하얀색과 전문가가 엄선한 오브제컬렉션(LG전자의 가전 브랜드) 색채인 카밍베이지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에어컨 내부 습기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적용됐다. 건조 풍량은 3단계로 나뉜다.

이번 모델은 냉방 면적에 따라 23㎡와 26㎡형으로 출시됐다. 출하 가격은 냉방 면적과 색상에 따라 90만~100만원 사이다.

## 시선 추적해 독해력 측정한다

## 비주얼캠프 스마트폰 앱 '리드'

"읽은 글자 594개, 읽은 시간 83초, 평균속도 146wpm(분당 단어 수), 분석 완료" 인공지능(AI) 기반 시선추적 기술 스타트업 비주얼캠프가 최근 출시한 앱 '리드'에서 읽기 습관을 측정할 수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주얼캠프는 사용자가 스스로 독해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선 추적 프로그램인 '시소'를 개발했다. 그동안 시소를 기반으로 교육, 의료 등 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공급했는데 리드를 앞세워 소비자화 및 직접 만나기 시작했다.

시소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시선이 어디에 얼마나 머무는지 알 수 있다. 2014년 비주얼캠프를 창업한 석운찬 대표(사진)는 "손이 아닌 눈으로 타이핑할 수 있을지 호기심이 생겼고, 아이디어를 상용화한 끝에 지금의 시소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시소 프로그램은 교원, 응진 등 교육 기업의 학습 태도 모니터링으로 쓰인다. 의료 및 광고 분야에도 응용된다. 사용자 동의를 받고 시선을 확인할 수 있게 영상 속 광고 노출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돌돌 말리는 車 디스플레이 나온다

## 현대모비스 세계 최초 개발 주행상황 따라 크기 조절 가능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돌돌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스마트폰이나 TV가 아닌 차량용으로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관계자는 "차량 내부 디자인의 새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주행 상황과 이용 목적에 따라 디스플레이를 위아래로 낄었다 펴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대시보드 안으로 화면이 말려 들어가 완전히 사라진다.

주행 중에는 화면의 3분의 1만 나오게 해 최소한의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분의 2 크기로 키워 내비게이션 정보를 볼 수 있다. 주차 중이거나 전 기차를 충전할 땐 16대 9 화면비와 30인치대 큰 화면을 갖춘 디스플레이로 확대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쿼드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량용 롤러블 디스플레이. 네 가지 주행 모드에 따라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최대 30인치 화면으로 확장도 가능하다. 현대모비스 제공

HD(QHD)급 이상의 해상도(2560×1440)를 갖췄다.

부피를 최소화한 가벼운 구조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자리에 장착하는 데 필요한 깊이가 12cm에 불과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운전석 주변은 물론 레저나 가족 단위 탑승객을 위한 목적기반차량(PV)에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천장에서 화면이 내려

오도록 장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북미·유럽 등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를 우선 공략할 방침이다. 자동차에 적용할 수준의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해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영훈 현대모비스 상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포테인먼트 신제품 트렌드를 주도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40만명이 쓰는 스포키 '스포츠판 배민' 정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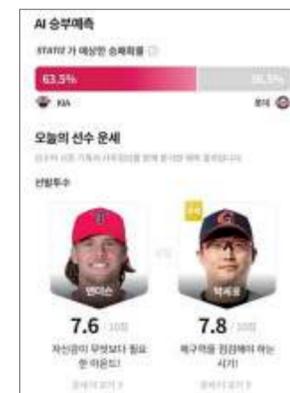
## 서비스 정식 출시 5개월만 AI 승부 예측 등으로 호평

## 다음 목표는 '광고 플랫폼' 체육관과 소비자 중개

LG유플러스의 스포츠 플랫폼인 '스포키'(사진)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출시 다섯 달 만에 240만 명의 이용자를 모았다. 비(非)통신 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LG유플러스의 '플랫폼 전략'이 본격화돼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유플러스는 17일 스포츠 플랫폼 스포키의 지난 3월 월 활성 사용자 수(MAU)가 24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선 구글 플레이스토어 스포츠 부문 앱 다운로드 순위 1위에 올랐다.

스포키는 지난해 9월 말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스포츠 중계 플랫폼이다. 전통적인 중계 콘텐츠 종목인 야구와 골프뿐 아니라 축구와 농구, 배구, 당구 관련 콘텐츠도 제공한다. 중계 이외에 다양한 즐길 거리를 플랫폼에 집어넣



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보인 인공지능(AI) 승부 예측 서비스를 올해 프로야구에 확대 적용한 것이 단적인 예다. 이달 초엔 선수들의 과거 기록과 사주를 토대로 한 경기 운세 서비스도 선보였다.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려면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포키는 내년부터 '보는 플랫폼'에서 '하는 플랫폼'으로 변신을 꾀할 예정이다. 골프, 테니스, 풋살 등 실제 활동 인구가 많은 스포츠에서 운동 업체와 동호회, 소비자 등을 이어주는 중개 기능을 가미해 스포츠계의 '배민'으로 스포키를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고광호 LG유플러스 스포츠 플랫폼 담당은 "요식업계에서 모바일 플랫폼이 전단 광고 수요를 끌어올렸듯 내년이면 스포츠 분야의 광고 수요를 스포키가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키는 내년부터 '보는 플랫폼'에서 '하는 플랫폼'으로 변신을 꾀할 예정이다. 골프, 테니스, 풋살 등 실제 활동 인구가 많은 스포츠에서 운동 업체와 동호회, 소비자 등을 이어주는 중개 기능을 가미해 스포츠계의 '배민'으로 스포키를 키우겠다는 설명이다. 고광호 LG유플러스 스포츠 플랫폼 담당은 "요식업계에서 모바일 플랫폼이 전단 광고 수요를 끌어올렸듯 내년이면 스포츠 분야의 광고 수요를 스포키가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정부포상 신청안내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2023년도 국가품질경영 유공 등 포상요령을 공고하여 금년도 11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시상합니다.

포상의 종류	신청내용	훈격
국가품질경영 유공(단체)	• 국가품질대상 제조 및 서비스(대·중·소), 공공, 교육, 의료, 디지털품질 • 국가품질경영상 제조 및 서비스(대·중·소), 공공, 교육, 의료, 디지털품질 • 국가품질혁신상 디지털전략, 생산, 설비, 제품품질, 품질경영력, 탄소중립, ESG경영, 고객만족, 서비스, 인력개발	대통령표창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국가품질경영 유공(개인)	• 품질경영 성과 창출 및 확산에 헌신한 공이 있는 자 대표 및 임원, 관리자 및 근로자, 품질경영 유공기관 종사자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한국표준협회장표창
품질분임조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임조 우수분임조(중) 수탁할한 혁신성과를 창출한 우수분임조	대통령명예대위 및 장관명예대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가품질경영 제조부문(서비스부문) 품질혁신 우수 분임조	현장에서 15년 이상 재직하며 혁신적 업무개선과 정인정신으로 품질혁신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범 근로자	대통령명예대위 증서
품질경영 우수기업	품질경영 기반의 우수한 품질경영력을 갖춘 기업 및 단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영의치 및 증서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구분	발표분야	계획일정	비고
예선 대회	• 현장개선 • 6시그마 • 사회적가치창출 • 학습조직(CoP)	• 사무간접	5~6월 중	전국 17개 시도
		• 서비스 • 보건경영(BAM) • 탄소중립 • 자유형식(제조)		
본선 대회		제49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8.28(월)~ 9.1(금)	전라남도 순천시

\* 품질분임조: 제조·서비스업에서 품질 및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고객만족, 업무개선 등의 창의적 혁신활동을 하는 소집단

### 품질경영 우수기업

QCAS(Quality Competitiveness Assessment System) 진단시스템으로 품질경영 우수기업을 선정·발표

산업	종류	규모	비고
제조업	전기, 전자, 화학, 금속, 기계, 자동차부품, 기타		
건설업	토목, 건축 등	OO사	매년 선정
공공기관	공공부(단), 공공행정서비스업종은 차관		
서비스업	서비스 전 분야		

### 국가품질상 신청기간 안내

구분	접수기간	
국가품질경영 유공(단체)	4.10(월)~5.12(금)	
국가품질경영 유공(개인)	1차	4.10(월)~4.25(화)
	2차	5.8(월)~5.12(금)
품질분임조	지역대선	시·도별 4~5월 중
국가품질경영	전국대회	7월중
국가품질경영 우수기업	5.8(월)~5.12(금)	
품질경영 우수기업	4.10(월)~5.12(금)	

### 포상 신청 및 문의처

품질경영추진본부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센터 또는 각 지역본부  
한국표준협회 국가품질센터

- 주소: (0616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삼성동 142-26) DT센터 8층
- 전화: 02-6240-4650-4
- 홈페이지: http://knqa.ksa.or.kr

한국표준협회 지역본부

- 경기강원지역본부: 031-546-6030-8
- 경남지역본부: 055-212-1212
-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062-953-1435-7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384-1562-4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2301-5
- 부산지역본부: 051-557-1239
- 울산지역본부: 052-289-6601-3
- 인천지역본부: 032-260-0260-7
- 전북지역본부: 063-214-2234-7
- 충북지역본부: 043-236-2451-3
- 강원지역: 033-252-9423
- 충남북부지역: 041-532-7200-5